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축전

2020.
07.03 - 31

2020 세계유산축전

경상북도
7.31-8.30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9.4-9.20

주최
문화재청

주관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한국문화재단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



서원산책 2020. 07. vol.1 창간 특집호



서원산책

2020. 07. vo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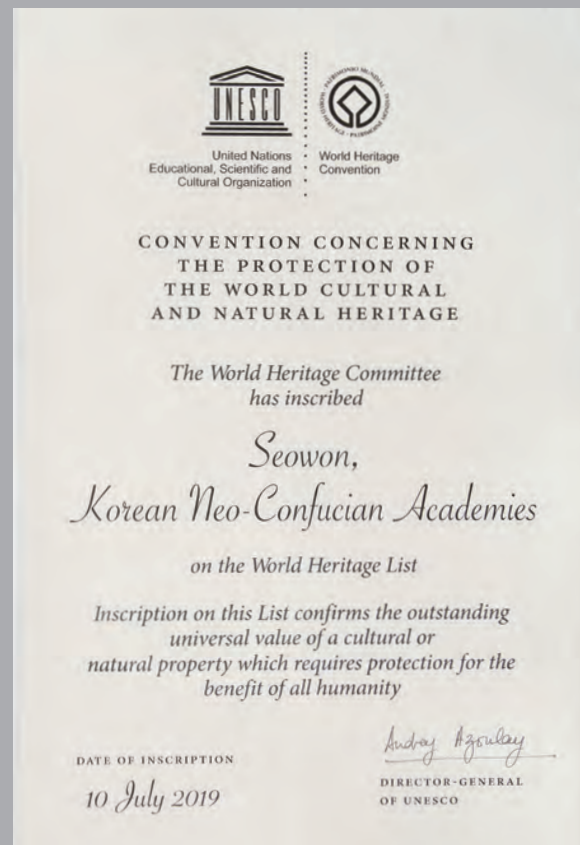
창간 특집호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9년에 걸친 땀과 노력의 결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인증서



2010년 그 첫 발을 내딛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노력은 마침내 2019년 7월 아제르바이잔의 뜨거운 햇살 아래 값진 결실을 얻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인증서는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보호되어야 할 문화 또는 자연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증한다. 기나긴 역사를 넘어 세계인의 유산으로 다시금 우리 곁에 찾아온 한국의 서원의 정신과 숨결의 증명이자 증거다.



04 발간사
서원의 미래를 마음에 새기고,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도약해야
이사장 이배용

06 축사
〈서원산책〉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문화재청장 정재숙

08 현장 스케치
자랑스러운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의 순간

12 서원 상식백과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16 한국의 서원
지식인 양성 요람, 성리학의 산실 ‘한국의 서원’

27 포커스온
2020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

36 행사 소식
2020 세계유산축전 안내



서원의 미래를 마음에 새기고,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도약해야...

신록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자연은 변함없이 여름을 알리고 다시 찾아오지만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작년에 한국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는 우리의 기쁨이자 희망입니다. 바로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뜨거운 햇살 아래 두 손 모아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기원하던 그날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역사학자로서 서원의 세계화에 확신을 가지고 구상하여 국가브랜드위원장 시절부터 9년이란 시간 동안 등재 추진을 총괄해온 저로서는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14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이 전 세계인의 지지와 축하 속에 세계의 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주시고 열정으로 함께해주신 서원 유림 여러분·지자체·문화재청·서원보존관리단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새롭게 한걸음 더 내디뎌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등재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의 품격에 맞는 보존과 발전의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서원의 미래를 마음에 새기고,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분께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소식지를 제작·배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서원'의 탁월한 가치와 다양한 이야기들이 함께 공유되고 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의 서원'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정신과 가치가 미래를 향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 **이배용**



〈서원산책〉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해 7월 여러분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한국의 서원’ 9곳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던 순간을 함께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단이 우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었지요. 등재를 위해 노력하셨던 더 많은 분을 뵙지 못하여 항상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렇게 지면으로라도 감사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서원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그 감동을 기념할 시기지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복병을 만나 너무도 아쉽던 차였는데,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에서 〈서원산책〉 창간호 발간을 준비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창간되는 〈서원산책〉은 함께 등재된 9곳 서원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정보지이자 각 서원의 일상을 나누는 소식지로서,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가치를 담는 크고 깊은 그릇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동조차 쉽지 않은 요즘, 〈서원산책〉 창간호가 서원에 계신 모든 분 곁에 가장 가까이 찾아가는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간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0년 7월

문화재청장 정재숙

자랑스러운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의 순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의 시작, 그 가슴 뜨거운 순간을 들여다본다.



2019년 7월 6일, 이 날은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역사적인 날이다.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의 등재에 이어 연속으로 얻은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경사로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4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정리. 편집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2019년 7월 6일,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심사 당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뜨거운 햇살을 가르고 이른 아침 회의장으로 달려 온 참석단 사이에는 부푼 기대와 함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사실 ‘한국의 서원’은 이미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평가결과에서 등재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목록 등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반려 결정의 쓰라린 기억 때문일까. 서원 유림들과 참석단 어느 누구도 쉽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참석단의 긴장된 마음과는 달리 회의장 안팎으로 참석단이 지나가는 곳마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감탄이 터져 나온다. 여기저기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물론 함께 사진을 찍어 줄 수 있냐는 수줍은 요청까지. 세계유산위원회의 모든 시선이 도포와 갓을 단정히 차려입은 한국의 서원 유림들을 향해 있었다.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지인 아제르바이잔 바쿠.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는 세계의 문화 그리고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해 발족한 유네스코의 위원회로 매년 1회 전체회의를 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할 유산을 선정한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순간을 보기 위해 머나먼 타국까지 한걸음에 달려온 서원 유림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후에 진행된 ‘한국의 서원’의 심사와 등재 발표

대한민국의 등재 심사 순서는 라오스, 미얀마에 이어 오전 9번째. 참석단은 아침 일찍부터 ‘한국의 서원’ 등재 순간만을 기다리며 앞 순서의 심사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회의 진행상 ‘한국의 서원’ 심사는 오전에 이뤄지지 못했고, 애타는 마음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드디어 오후 두 번째 순서로 ‘한국의 서원’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다.

「‘한국의 서원’은 서원의 시작과 발전을 담고 있습니다. 15~19세기 조선왕조의 성리학 교육기관 유형을 대표하는 9개의 서원으로 구성되어, 대한민국의 중부와 남부에 걸쳐있는 ‘한국의 서원’은 몸과 마음의 수양과 자연에 대한 감상의 일환으로 산과 물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이 한국에서 교육적, 사회적 관행의 형태로 발전해온 문화적 전통의 우수한 증거라고 생각되며, 그중 많은 부분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성리학 개념의 지역화에 대한 뛰어난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서원’은 보존상태가 뛰어나며 화재나 개발, 해충피해 등의 주요 요인들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코모스는 등재기준에 근거해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 이코모스 발표 내용 일부 발췌

모두 함께 나눴던 기쁨, 등재의 순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 소식으로 아제르바이잔과 대한민국 양쪽 모두에서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해 노력해온 외교부, 문화재청, 9개 서원과 관련 전문가 및 관리단을 대표하여 정재숙 문화재청장, 이병현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가 차례로 인사말을 전했다. 한국의 유산에서 이제는 세계의 유산이 된 ‘한국의 서원’을 잘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였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따뜻한 환호와 축하에 답하여, 공손히 두 손을 모아 예를 다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유림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전 세계인의 가슴에 남았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을 넘어 이제는 세계의 유산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서원’. 그 속에 담긴 탁월한 가치와 아름다운 정신을 다시금 미래로 이어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닐까.

세계유산위원회 등재현장

2019. 07. 06.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현장

- 관리단 대외 홍보활동
- 등재 발표 후 단계기념촬영



1. 등재 발표 후 단계기념촬영
2. 관리단 홍보활동
3. 정재숙 문화재청장 주최 만찬
- 4.5. 국무총리 오찬
6. 이배용 이사장 감사패 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2019. 07. 30.

국무총리 오찬

- 국무총리 오찬
- 국무총리 오찬 기념촬영



2019. 09. 05.

등재기념식

- 이배용 이사장 감사패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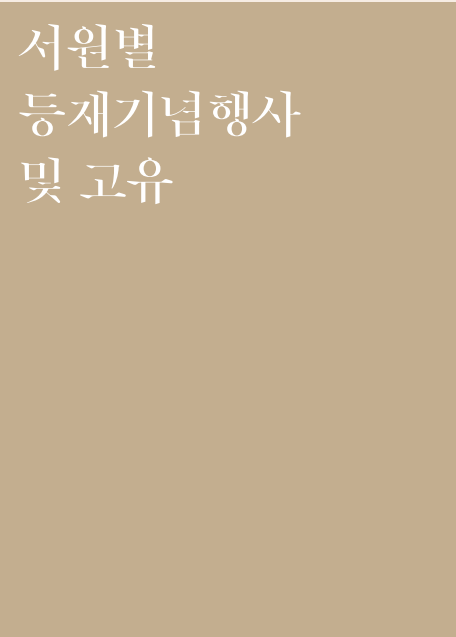
2019. 09. 20.

등재 기념행사

- 한국의 서원 등재인증서 소개
- 등재기념 합동 고유제



7. 통합 등재 기념행사
8. 등재기념 합동 고유제



필암서원



병산서원



소수서원



도산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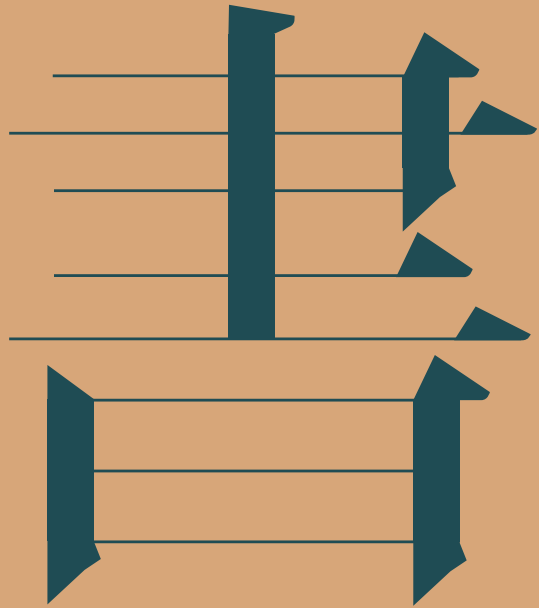
도동서원



남계서원



무성서원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은 2019년, 한국의 14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세계유산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한국의 서원’은
조선 사회 전반에 널리 보편화된 성리학의 탁월한 증거이자
성리학의 지역 전파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리. 편집실



한국의 서원은 9개의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16세기 중반 ~ 17세기 중반) 성리학 교육기관
의 유형을 대표하는 9개의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이는 한국의
성리학과 연관된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로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을 포함한다. 이
들 9개 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요구하는 유산의 탁월한 보
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입증하며 세계인의 유산으
로 인정받았다.

서원	사적 지정번호	주향 인물	서원별 OUV
소수서원	제55호	안향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남계서원	제499호	정여창	지역 유림의 자발적 건립, 한국 서원의 전형적 배치 구성
옥산서원	제154호	이언적	교육과정 기록문서 및 풍부한 출판 활동, 초기 누마루
도산서원	제170호	이황	학파 중심의 서원 건립의 대표적 사례
필암서원	제242호	김인후	서원의 재산과 노비 등 운영관련 문서 소장
도동서원	제488호	김광필	전형적 경사지 서원의 일렬 건축 배치
병산서원	제260호	류성룡	교육기관에서 여론 수렴지로의 역할 확대
무성서원	제166호	최치원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장소, 의병(병오창의)
돈암서원	제383호	김장생	예학 연구를 통한 서원 건축의 새로운 해석(응도당)

01 연속유산



1543년 소수서원



1552년 남계서원



1572년 옥산서원



1574년 도산서원



1590년 필암서원



1605년 도동서원



1613년 병산서원



1615년 무성서원



1634년 돈암서원

02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해당 유산이 가진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입증해야만 한다. 단순히 외관이 아름답다거나 많은 사람이 찾는 인기 있는 관광명소라는 이유로는 부족하다. 세계유산목록의 OUV 기준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만 세계유산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한국의 서원은 기준(iii)*에 해당하는 다음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 기준(iii):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의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그 교육과 사회적 관습은 많은 부분에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서원은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되고, 서원의 기능과 배치, 건축적인 면에서 변화를 겪고 토착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인 증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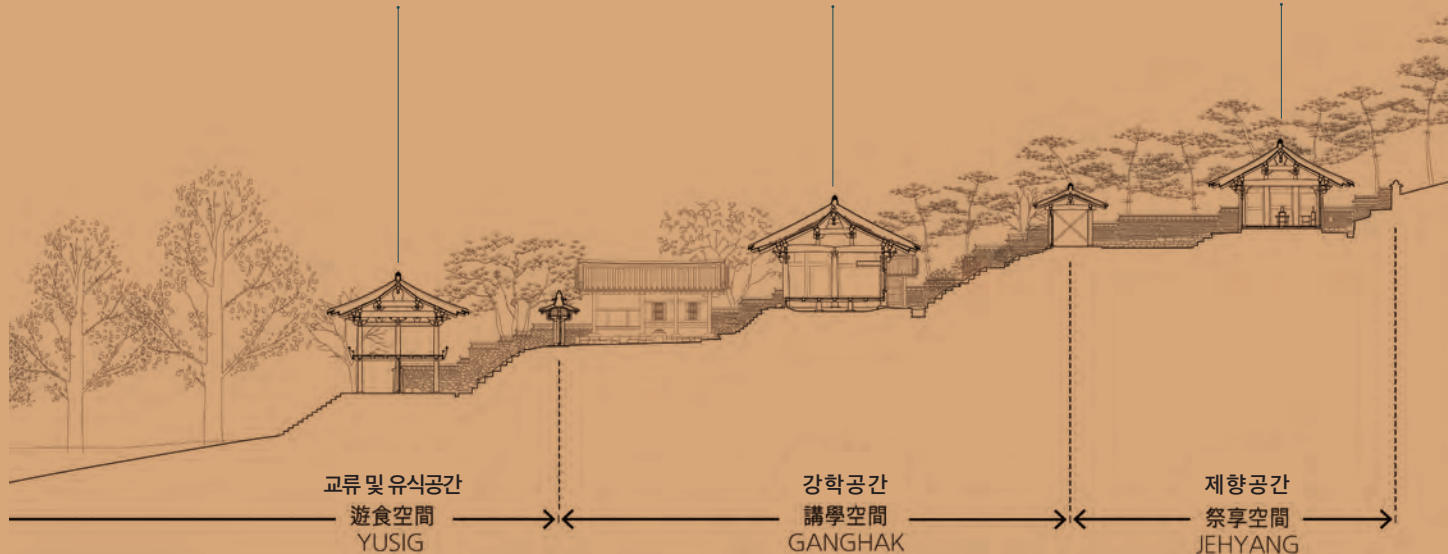
소수서원 취한대



병산서원 강학



소수서원 제향



03 14번째

한국의 서원은 한국에서 14번째로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석굴암과 불국사(1995) 연속유산(2)
해인사 장경판전(1995) 단일유산(1)
종묘(1995) 단일유산(1)
창덕궁(1997) 단일유산(1)
화성(1997) 단일유산(1)
경주 역사지구(2000) 연속유산(5)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2000) 연속유산(7)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연속유산(5)
조선왕릉(2009) 연속유산(18)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 연속유산(5)
남한산성(2014) 연속유산(2)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연속유산(8)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 연속유산(7)
한국의 서원(2019) 연속유산(9)

현재까지 한국에는 총 14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존재한다. 2019년 '한국의 서원'이 14번째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됐으며 앞서 등재된 13개의 유산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석굴암과 불국사, 조선왕릉, 남한산성,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이다. 한국의 서원이 등재되기 전 해인 2018년에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는 기쁨을 누렸는데, 산사 또한 7개의 사찰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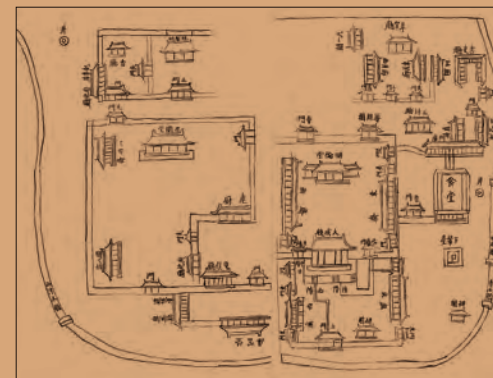
한국의 유네스코 지정유산에 대한 정보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https://heritage.unesco.or.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4 사립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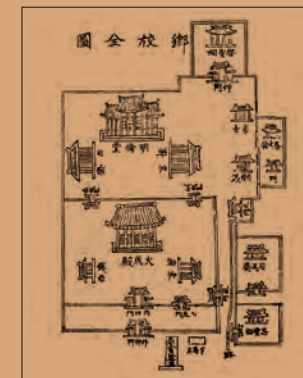
서원은 조선시대 사립학교다

서원은 강학, 제향, 그리고 교류와 유식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조선시대의 사립학교다. 사립 성리학 교육기관으로서 후속 세대의 학문적 양성을 기본 목표로 하면서 선현에 대한 제향의 기능 또한 독보적으로 전승하고 존속해왔다. 더불어 사립의 정치·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교류와 유식이 강조되어 다른 교육 유산과 구별되는 서원만의 차별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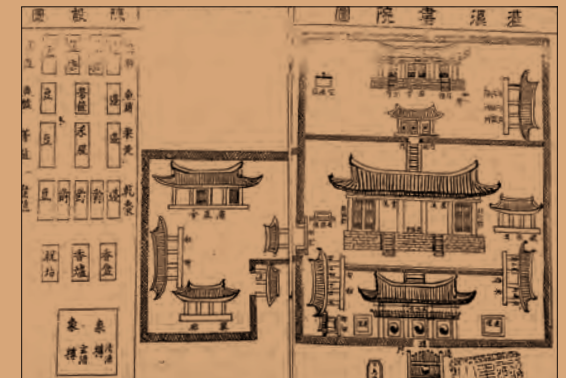
흔히 서원과 비교되는 향교는 당시의 공립학교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인 서원과 향교를 구분 짓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 교육의 목적에 있는데, 향교가 관료 양성을 위한 교육을 펼쳤다면 서원은 성리학에 대한 연구와 인성교육을 그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국립 성균관(태학지)



공립 향교(나주향교지)



사립 서원(남계서원지)

한국의 서원



지식인 양성 요람, 성리학의 산실

정리. 편집실 자료. 개별 서원

서원은 성리학이 만개했던 조선의 성리학 교육과 사회적 확산을 주도했던 교육기관이자 무형적·역사적 독특성의 탁월한 증거이다. 서원의 성리학자들은 강학을 통한 성리학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해했고, 정기적인 제향을 통해 학파의 결집을 도모했다. 또한 교류와 유식을 통해 성리학에 부합한 향촌 교화활동을 주도했으며 이를 위해 교육에 필요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 시스템과 물리적 시설을 완성했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16세기 중반 ~ 17세기 중반) 성리학 교육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9개의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이는 한국의 성리학과 연관된 문화적 전통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로서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 대구 달성의 도동서원, 경북 안동의 병산서원,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이 해당된다.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성리학이 한국의 현지 환경에 맞춰 변화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기능과 배치, 건축학적 측면에서의 변혁 및 지역화 과정의 탁월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한국의 서원은 2019년 7월, 진정성과 완전성을 바탕으로 그 세계유산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제는 한국을 넘어, 세계의 유산으로 자리잡은
'한국의 서원' 9곳이 뽐내는 수려한 아름다움과 찬란한 역사의 숨결에 함께 귀 기울여 보자.

하나. / 소수서원

紹修書院

Sosu-seowon

한국 최초의 서원이자 운영규정의 근본, 소수서원



주소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사적 제55호
건립 연도 1543년
주향 인물 안향(安珦, 1243-1306)
주요 문화재 안향초상(국보 제111호) 등
문의 054-639-5852
홈페이지 www.yeongju.go.kr/open_content/sosuseowon/index.do



✉ 소수서원에서 온 편지

유교의 성지 소수서원을 비롯한 '한국의 서원' 9곳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이 대업을 수행하느라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소수서원은 향기로운 선조들의 전통유산을 더욱 계승·발전시켜 유교가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수서원은 주세붕(1495-1554)의 주도하에 지역 사람들이 함께 건립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서원이며 서원 교육 및 제향과 관련된 운영규정이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다. 소수서원은 또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이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등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함을 제시했다.

소수서원의 주향 인물인 안향(1243-1306)은 13세기 말 원나라에서 최초로 성리학을 도입해 한국 성리학의 기원이 되는 인물이다. 이후 안향의 후손인 안축과 안보, 그리고 풍기군수로 재임했던 주세붕이 추가로 배향됐는데, 공자가 아닌 지역의 선현으로 제향 인물을 선정하는 서원의 전통 역시 소수서원에서 시작했다.

소수서원의 제향 의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도동곡'은 제향 인물인 주세붕이 소수서원 창건 당시 지은 노래로 안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작곡됐다. 제향 의례에 제향 인물과 연관된 가사가 포함된 것은 한국에서도 유일한 사례다.



주소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길 8-11
사적 제499호
건립 연도 1552년
주향 인물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주요 문화재 일두선생 문집 책판(시도지정문화재 제166호), 개암선생 문집 책판(시도지정문화재 제167호) 등
문의 055-962-1438
홈페이지 www.hygn.go.kr

둘. / 남계서원

濫溪書院

Namgye-seowon

한국 서원 건축의 배치 정형 첫 등장

✉ 남계서원에서 온 편지

동방오현 중 한 분이신 일두 정여창 선생의 실천유학 정신, 개암 강익 선생의 선비 정신, 그리고 동계 정온 선생의 충절의 기상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남계서원입니다. 세계인의 유산으로 인정받은 남계서원의 학문적·건축적·환경적 가치가 말로 우리 함양의 큰 자랑입니다.

1552년에 건립된 남계서원은 한국의 두 번째 서원이자 지역 사림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사례다. 경사지의 지형 조건을 활용해 제향, 강학, 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배치 정형을 최초로 제시해 한국 서원의 독창적 건축 배치 형식의 근간을 마련했다.

남계서원의 주향 인물은 함양 출신 사림인 정여창(1450-1504)으로, 16세기 전반 중앙정계에 관료로 진출해 성리학에 기반한 입장을 견지하며 정치 활동을 했다. 남계서원의 사림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을 사람들의 혼례나 장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의 교화에 힘썼으며, 정기적인 제향 의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격식을 갖추고자 했다. 또 16세기 후반 일본의 침입에 맞서 경상남도의 의병활동을 주도했으나, 그 결과 1595년 일본군에 의해 전소(全燒)되어, 전쟁이 종료된 후 1603년 함양지역 사람들이 재건했다.



넷.／옥산서원

玉山書院
Oksan-seowon

서원 교육의 역할 정립과 문화교류의 장



주소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216-27
사적 제154호
건립 연도 1572년
주향 인물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주요 문화재 『삼국사기』(보물 525호) 등
문의 054-762-6567
홈페이지 www.gyeongju.go.kr

✉ 옥산서원에서 온 편지

등재 추진과정은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원 안팎을 살피며 열정을 다했습니다. 중국의 실사자 평전(鄭弼)이 우리 옥산서원의 방대한 자료들과 그 보존·활용상태를 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앞으로도 세계유산의 품격에 맞는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산서원은 출판과 장서의 중심기구로서 서원의 역할을 정립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림을 비롯해 관료, 타 지역 사림 등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문화교류의 공간으로서, 옥산서원에 걸려있는 대표적 편액 2점은 16세기의 명필가 한호(1543-1605), 19세기의 명필가 김정희(1786-1856)의 작품이다.

1572년에 건립된 옥산서원의 주향 인물 이언적(1491-1553)은 한국 성리학 발전 단계에서 존재론·우주론 등의 성리학 이론을 탐구하고 토론을 주도했던 인물로, 16세기 중앙정계에 진출해 성리학에 기반을 둔 정치적 견해를 제시했고 왕실의 성리학 교사로 활동했다.

또한, 교류와 유식 시설로서 누마루 건축물을 처음으로 서원 건축에 도입한 사례가 바로 옥산서원이다. 누마루인 무변루는 강학 공간과 유식 공간을 구분하는 진입문이자 외부와 내부의 경관을 연결하는 건축물이다. 내부와 외부가 모두 열려있는 구조로 가변적 개폐 방식을 통해 주변 경관을 서원 내부로 끌어들이는 시각적 효과를 준다.



주소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사적 제170호
건립 연도 1574년
주향 인물 이황(李滉, 1501-1570)
주요 문화재 전교당(보물 210호) 등
문의 054-856-1073
홈페이지 www.dosanseowon.com

넷.／도산서원

陶山書院

Dosan-seowon

독특한 강학 활동과 퇴계학파의 요람



✉ 도산서원에서 온 편지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전 세계가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공감하였습니다. 한 차례 반려 판정의 좌절을 딛고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는 바쿠에서의 크나큰 환호로 돌아왔습니다. 외적인 보존 관리만 큼이나 서원의 정신과 문화가 전 세계인의 삶에 닿아 인류의 평화와 행복에 기여토록 더욱 노력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도산서원은 한국 서원 중에서 학문 및 학파의 전형을 이룬 대표적 서원으로 한국 서원의 역사에서 학술·정치·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상징적이다.

도산서원의 주향 인물은 이황(1501-1570)이며, 그는 안동 출신으로 중국에서 전래한 성리학을 한국에 정착시키고 체계화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도산서원은 주향 인물인 이황의 강학처였던 도산서당을 모태로 이황 사후 서원으로 건립했으며, 현재에도 강학 공간 전면에 도산서당이 있다. 토론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형태의 강학 활동이 존재했으며 소장 자료를 통해 서원의 교육 방식을 입증한다.

도산서원은 전각 형식에 있어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향 공간과 강학 공간을 비대칭으로 설정해 서원 건축의 혁신을 보여준다. 낙동강이 흐르는 경사지에 자리한 도산서원은 탁월한 자연경관으로 그 모습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이 남아 있다.

다섯. / 필암서원
筆巖書院
Piram-seowon
평지에 자리한 건축 배치의 변주



주소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378-379
사적 제242호
건립 연도 1590년
주향 인물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주요 문화재 필암서원 문적일괄(보물 587호) 등
문의 061-394-0833
홈페이지 www.jangseong.go.kr



✉ 필암서원에서 온 편지

성리학 교육기관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선한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한국의 서원이 가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영원히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겠지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정신 문화를 더 널리 알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원들이 경사지에 조성된 이유는 각 공간의 위계를 설정해 시각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러나 기존의 서원과 달리 평지에 자리한 필암서원은 강당과 동·서재가 사우를 일상적으로 바라보도록 공간을 구성하며 건축 배치 형식을 창의적으로 적용하여 이후 건립되는 평지형 서원의 전형이 됐다.

필암서원의 주향 인물 김인후(1510-1560)는 16세기 중반 성리학 이론을 도식화해 성리학 이해의 진전을 가져왔다. 성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중앙정계에서 왕실의 스승으로 활약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은 필암서원이, 전라남도의 사림과 서원을 주도하는 서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기반이 됐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전라남도의 사림은 의병을 결성했고 필암서원은 저항활동의 중심지가 됐다. 이 과정에서 1597년 필암서원은 전소(全燒)됐지만, 지역 사림에 의해 1624년 재건됨으로써 서원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었다. 또 필암서원에는 경제적 기반과 관련된 토지, 노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어 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이 정립되는 단계를 보여준다.



주소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로 1
사적 제488호
건립 연도 1605년
주향 인물 김굉필(金宏弼, 1454-1504)
주요 문화재 도동서원 중정당·사당·담장(보물 350호)
문의 054-616-6407
홈페이지 www.dalseong.daegu.kr

여섯. / 도동서원
道東書院
Dodong-seowon
완벽한 준례로 존현의식·예학사상 전승

✉ 도동서원에서 온 편지

한 차례의 등재신청 철회는 지금까지도 뼈아픈 기억입니다. 그러나 2019년 바쿠의 감격은 추진단을 비롯한 지자체 공무원과 서원관계자 모두가 심기일전 땀 흘린 결과였으며 400여 년을 지켜온 선인들의 노력이 꽃 피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유산의 명성에 걸맞게 더욱 정성껏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도동서원은 경사지를 기반으로 한 서원 구성의 전형을 보여준다. 건축물별로 여러 개의 단을 조성해 외부의 자연경관을 시각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활용하여 경사지를 활용한 건축 배치를 탁월하게 구현했다.

도동서원의 주향 인물인 김굉필(1454-1504)은 성리학을 토대로 교육을 통한 후학 양성에 집중한 사림 활동의 한 유형을 보여준다. 1605년에 건립된 도동서원은 지역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활동을 주도했다. 지역의 사림·서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담은 고문서들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현재 서원향사에서 준례가 가장 완벽하게 남아 있는 대표적 서원이다.

도동서원은 제향 절차의 하나인 음복례를 엄격하게 진행한다. 홀기에 따라 행하므로 의식이 엄숙할 뿐만 아니라 제관 모두에게 돌아가며 순배를 하기에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이런 모습을 통해 존현의식과 예학사상을 전승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일곱. / 병산서원
 屏山書院
 Byeongsan-seowon
 자연과의 서원의 아름다운 앙상블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사적 제260호
 건립 연도 1613년
 주향 인물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주요 문화재 징비록(국보 132호) 등
 문의 054-858-5929
 홈페이지 www.byeongsan.net/

✉ 병산서원에서 온 편지

병산서원은 임진왜란 시 명재상(名宰相)으로 국보 132호 징비록을 집필하신 서애 류성룡 선생을 배향하고 있으며, 한국서원 건축의 백미로 알려진 아름다운 서원입니다. 2010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등재와 더불어 2019년 한국의 서원까지 세계유산 2관왕을 차지한 병산서원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병산서원은 1613년 류성룡의 제자와 후손, 그리고 안동 지역 사림에 의해 만들어졌다. 서원은 교육기관에서 출발했지만,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점차 사림 활동의 중심지로 그 영역을 넓혀갔다. 조선시대 최초로 만인소를 작성하는 등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곳이 바로 병산서원이다. 주향 인물인 류성룡(1542-1607)은 16세기 후반 영의정·도체찰사로 임진왜란을 수행한 인물이다. 류성룡은 임진왜란 과정에서 ‘징비록’, ‘군문등록’ 등 여러 저술을 남겼는데, 병산서원에서 이를 출판·간행했다. 병산서원의 건축물은 전체적으로 장식을 배제하고 있지만, 만대루를 비롯한 건축물들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뤄 인위적인 장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7칸으로 구성된 누각인 만대루는 칸마다 각각 다른 장면을 연출해 줌으로써 서원의 자연경관을 극적인 공간으로 연출한다.



주소 전북 정읍시 칠보면 원촌1길 44-12
 사적 제166호
 건립 연도 1615년
 주향 인물 최치원(崔致遠, 857-?)
 주요 문화재 고현동향약(보물 1181호)
 문의 063-531-1022
 홈페이지 www.jeongeup.go.kr

여덟. / 무성서원
 武城書院
 Museong-seowon
 교육에서 사회로 서원의 기능 확산



✉ 무성서원에서 온 편지

우리 무성서원은 일찍이 전라우도(全羅右道)의 수원(首院)이요, 1906년에는 8백 의병이 항일(抗日)의 횃불을 든 병오창의(丙午倡義)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영예의 세계문화유산까지 되었으니 앞으로 이 긍지를 지켜나가는 데 온 정성을 다 바칠 것입니다.

1615년 세워진 무성서원은 지역의 교육과 흥학 전통을 토대로 건립된 사례며 서원이 가진 기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대표한다. 성리학의 사회 전파와 관련해 사림 활동 중 가장 대표되는 것은 지역 자치규약인 향약이다. 무성서원은 향약의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지역민 결집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지역사회 결집 역할은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배에 항거하는 병오창의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서원의 사회적 기능 확대는 서원의 입지와 건축 구성에도 영향을 끼쳤다. 무성서원의 건축물들은 마을을 향해 열린 공간으로 구성돼 서원 영역 전체를 관통하는데 이러한 개방형 구조는 9개 서원 중에서도 예외적인 사례다. 주향 인물은 최치원(857-?)이다. 무성서원은 제향 의례 전에 서원 입구에서 서원 경내의 건물 마당을 거쳐 제향 공간까지 황토를 뿌린다. 이는 선현께 올리는 신로와 제물을 신성시해 사사로운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게 한다는 벽사의 의미가 있다.

아홉. / 돈암서원
遯巖書院
Donam-seowon
성리학 실천 이론인 예학 연구의 중심



주소 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3길 26-14
사적 제383호
건립 연도 1634년
주향 인물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주요 문화재 돈암서원 응도당(보물 1569호) 등
문의 041-736-0096
홈페이지 www.donamseowon.co.kr



☞ 돈암서원에서 온 편지

돈암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이 되었습니다. 등재 후 많은 관광객이 서원을 방문하여 사계선생의 뜻을 기리며 예절과 인성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원에 담긴 선조들의 문화와 사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를 기원하며, 항상 배움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서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1634년 김장생의 제자들과 논산 지역 사림에 의해 세워진 돈암서원은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禮學)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이다. 주향 인물인 김장생(1548-1631)은 17세기 조선의 예학 연구를 선도한 사림으로서 그의 견해는 중앙정계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예학은 전쟁으로 폐쇄된 국가의 질서를 재건하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으며, 돈암서원은 조선시대 예학의 거점이자 지역 학맥의 거점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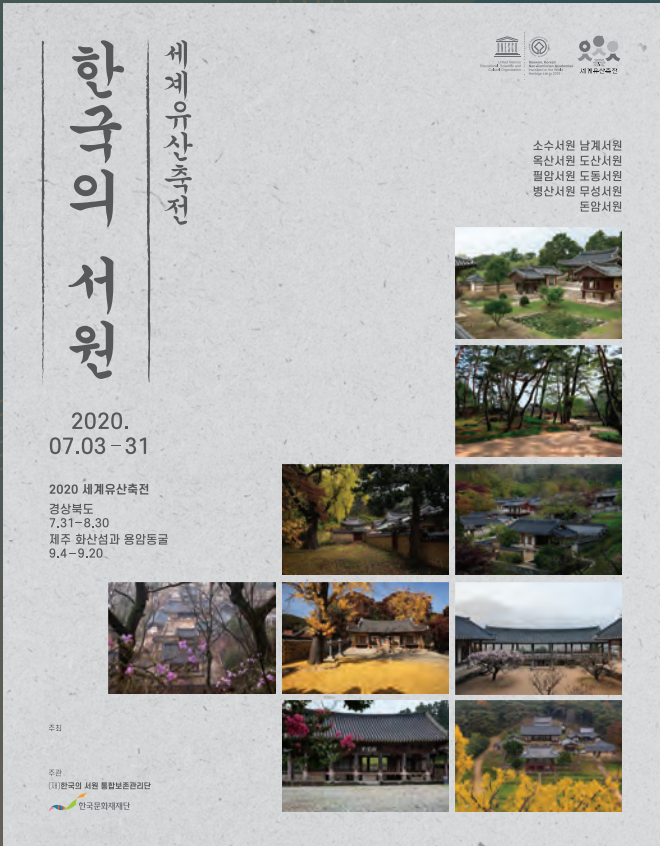
이는 돈암서원의 서원 형식에도 큰 혁신을 불러왔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강당 ‘응도당’이다. 응도당은 주향 인물인 김장생에 의해 기획됐고 그의 예학 관련 저술인 ‘가례집람’에 관련 사항이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서술돼 있다. 응도당은 다양한 의례 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한국의 전통건축과 예학 이론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건축물의 현판들은 성리학적 예(禮)와 관련한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목판과 장서 등 대부분의 기록물은 예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0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

서원, 한국의 문화 브랜드가 되다!

400여 년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서원, 유교문화의 다양성과 지역적 특성이 집성된 한국 서원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적 경쟁력을 계승하고 활용하기 위한 축제가 펼쳐진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곳에서 진행되는 ‘2020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한국의 세계유산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2020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은 세계유산의 가치와 그 특성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 축제다. 2020 세계유산축전의 여러 행사 중 「한국의 서원」은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서원 9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가치향유와 가치확산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각 권역별 주제와 장소의 특성을 담은 체험, 자연행사, 공연, 학술세미나, 백일장 등을 마련했다. 한국의 서원을 찾은 방문객들이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느끼고, 서원의 본질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 행사

1

서원 회화전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

한국의 서원 등재1주년을 기념해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 서원 회화전이 소수서원 소수박물관에서 개최된다. 한국의 서원 9곳을 화폭에 담아낸 이번 이호신 작가 초대전은 우리 서원이 가진 아름다운 멋과 전통 미학을 수묵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소수서원에 위치한 소수박물관에서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다.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서원 회화전

기간 6월 15일(월)~7월 31일(금)

장소 영주 소수박물관

내용 2020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 이호신 작가 초대전

문의 소수박물관 / 054-639-7964

홈페이지 www.yeongju.go.kr/open_content/sosuseowon/index.do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이호신 작가 초대전 전시회 포스터



1.2 서원 회화전 개막식 행사

2

전주 특별전

서원,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다

한국의 서원 등재1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전주박물관과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공동으로 9개 서원의 주요 지정문화재 및 각 서원의 정신을 담은 현판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기본 역할에 초점을 맞춰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선시대 대표 교육기관이었던 서원을 통해 조선시대를 이끈 지도자와 선비정신을 조명한다.

〈서원,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다〉특별전

기간 6월 30일(화)~8월 30일(일)

장소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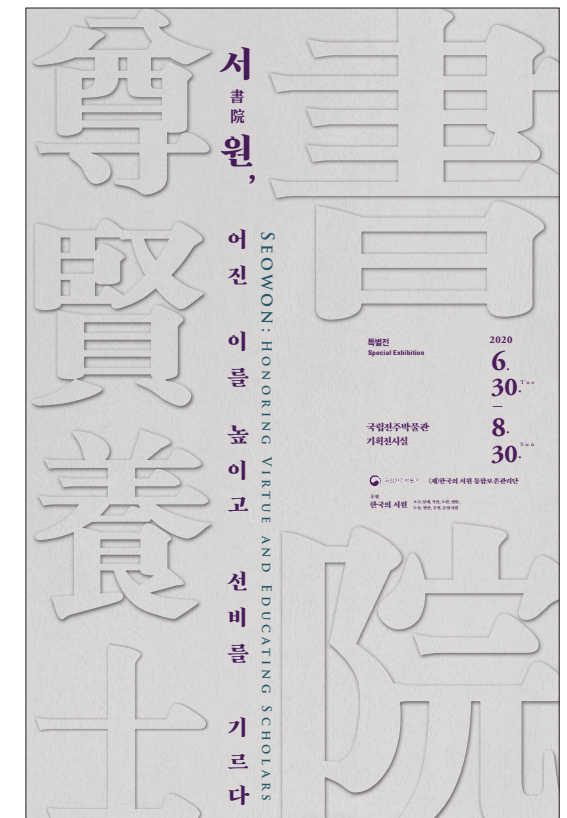
주요 전시품 안향 초상(국보 제111호), 강세황필 도산서원도(보물 제522호) 등 140여 건

문의 국립전주박물관 / 063-223-5651

홈페이지 jeonju.museum.go.kr



안향 초상(국보 제111호) 소수박물관 소장



〈서원,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다〉특별전 전시회 포스터

개막식 및 음악회 행사

1

2020 세계유산 축전 「한국의 서원」 개막식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

2019년 세계유산목록에 이름을 올린 '한국의 서원'의 등재 1주년을 기념하고 2020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의 성대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행사가 2020년 7월 3일(금) 도산서원(경북 안동시) 앞마당에서 개최된다.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라는 주제로 펼쳐질 이번 개막식은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과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이 주관하여, 유관기관 주요 인사와 9개 서원 유림·지자체 단체장 및 관계자, 안동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식전공연과 개막공식행사, 축하공연 등으로 알차게 구성될 이번 행사는 퇴계 이황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무대극 ‘인류의 스승 퇴계선생’, 국악 실내악 및 전통 타악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나누는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의 진면목을 선보인다.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

2020 세계유산축전 「한국의 서원」 개막식

기간 7월 3일(금) 15:30

장소 도산서원 앞마당

행사 무대극, 국악 실내악 및 전통 타악 공연 등

문의 도산서원 / 054-856-1073

홈페이지 www.dosanseowon.com



3

경축음악회

예악으로 바치는 공경

2020년 7월 3일(금) 2020 세계유산 축전 「한국의 서원」 개막식에 바로 이어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예악으로 바치는 공경>이란 주제로 경축음악회가 펼쳐진다. 도산 12곡 합창과 판소리, 가야금 등의 전통 국악과 소프라노, 바리톤, 첼로, 플룻, 피아노 등의 서양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도산서원의 여름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7월 2일(목)부터 19일(일)까지 2주간 '인류의 정신 가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도산서원 전시회가 진행되어, 세계유산의 가치를 마음껏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예악으로 바치는 공경〉

경축음악회

기간 7월 3일(금) 17:00~18:00

장소 도산서원 앞마당

문의 도산서원 / 054-856-1073

홈페이지 www.dosanseowon.com



4

국제학술대회

서원의 가치와 보존

서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해 보존과 활용을 통한 유산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전통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국내외 서원 관련 연구자와 청장년 유림, 대학생 등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서원'을 비롯한 전통 교육기관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세계유산(연속유산)에 대한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원의 가치와 보존〉 국제학술대회

기간 10월 29일(목)

장소 서울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주요내용 1부 | 한국 서원의 가치, 2부 | 한국 서원의 보호, 3부 | 종합토론

문의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 02-929-5441~2

홈페이지 www.seowonheritage.org

서원별 행사

1



서애 선생의 나라사랑

병산서원 충효기행 프로그램

기간 7월 1일~31일 중

(총 6회 진행, 회당 2박 3일 프로그램)

장소 경북 안동시 병산서원

대상 회당 30여 명(개인, 가족, 기업인, 교사 등)

내용 서원문화 체험을 통해 선조들의 공부법 및 교육 이해,
2박3일 동안 선비의 삶과 예절 등을 배우고 유교 문
화길(선비길)을 걸으면서 선비정신 체험

문의 병산서원 / 054-858-5929

홈페이지 www.byeongsan.net

2

인류의 정신가치를 이야기하다

도산서원 전시회

기간 7월 2일(목)~19일(일)(2주)

장소 경북 안동시 도산서원

대상 지역민, 방문객, 청장년 유림, 전통문화(의례) 관련
대학생 문화 동아리 외

내용 도산서원 및 '한국의 서원'에 대한 전시 설치 및 운영, 도
산서원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문의 도산서원 / 054-856-1073

홈페이지 www.dosanseowon.com



3

제향으로 올리는 사은(師恩)

소수서원 공개 제향 행사

기간 7월 4일(토)

장소 경북 영주시 소수서원

대상 지역민, 경북 관련학과 대학생 외

내용 소수서원 공개 제향(상음례, 제의례, 도동곡 창) 및
한시 백일장

문의 소수서원 / 054-639-5852

홈페이지 www.yeongju.go.kr/open_content/sosuseowon/index.do



4

사람됨을 위한 정성

돈암서원 예절교육 / 돈암 만인소 운동 체험 마당

기간 7월 9일(목)~11일(토)

장소 충남 논산시 돈암서원

대상 지역민, 대학생, 유림 및 일반인,
가족단위 참가자 외

내용 돈암 만인소 운동(길 따라 돈암서원 이야기,
유복입기, 사계선생의 예학 배우기,
만인소 선언 및 서명 외), 체험 프로그램

문의 돈암서원 / 041-736-0096

홈페이지 www.donamseowon.co.kr



5

국악은 풍류를 타고

무성서원 KBS 국악 한마당

기간 7월 10일(금) ※ 방송 일시: 8월 15일(토)

장소 전북 정읍시 무성서원

대상 지역민, 전라북도민, 대학생 및 유학생 외

내용 KBS 전주 국악한마당, 체험프로그램
- 연년 프로그램 : 무성서원 세계유산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7월 8일)

문의 KBS전주 / 063-270-7100

홈페이지 www.jeongeup.go.kr



6

지혜로 여는 대동세계

도동서원 과거제 재연

기간 7월 11일(토)

장소 대구시 달성군 도동서원

대상 대구, 경북지역 대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5개 학교)

내용 문 무과 시험 재현 및 체험행사 진행

문의 도동서원 / 054-616-6407

홈페이지 www.dalseong.daegu.kr



7

일두 정여창 선생을 그리며

남계서원 한시 백일장

기간 7월 10일(금), 7월 17일(금)

장소 경남 함양군 남계서원

대상 전국 유림 및 초·중·고 학생, 대학생 외

내용 한시 백일장, 서예 실기 대회

문의 남계서원 / 055-962-1438

홈페이지 www.hygn.go.kr



8

서예로 품는 선비의 삶

필암서원 하서 유적탐방 및 서예체험

기간 7월 19일(일)

장소 전남 장성군 필암서원

대상 지역민, 초등학교, 일반인, 관련 대학 동아리 외

내용 필암서원 향사 재연 및 하서 김인후 선생 서예전

문의 필암서원 / 061-394-0833

홈페이지 www.jangseong.go.kr



9

동방의 지혜, 세상을 밝히다

옥산서원 한·중 학술대회

기간 9월 22일(화)

장소 경북 경주시 옥산서원

내용 한·중 학술대회

문의 옥산서원 / 054-762-6567

홈페이지 www.gyeongju.go.kr



구분	프로그램명	시기	장소	프로그램 개요
통합 행사	서원 회화전	06.15~07.31.	소수박물관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 (등재 1주년 기념 전시회)
	전주 특별전	06.29~08.30.	국립전주박물관	서원,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기르다 (등재 1주년 기념 특별전)
	기념식	07.03. 15:30	도산서원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 (등재 1주년 기념식)
	경축 음악회	07.03. 17:00	도산서원	예악으로 바치는 공경 (경축 음악회)
	국제학술대회	10.29.	서울(한국프레스센터)	주제:서원의 가치와 보존
개별 행사	9개 서원 축전행사	07.01~07.31(6회).	병산서원	서애 선생의 나라사랑 (충효기행 프로그램)
		07.02~07.19(2주).	도산서원	인류의 정신가치를 이야기하다 (도산서원 전시회)
		07.04(1회).	소수서원	제향으로 올리는 사은(師恩) (소수서원 공개 제향) ※ 한시 백일장 대회(09시~17시)
		07.09~07.11(3일).	돈암서원	사람됨을 위한 정성 (예절교육 / 돈암 만인소 운동 체험마당)
		07.08.	무성서원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
		07.10. 행사,촬영 08.15. 방송		국악은 풍류를 타고 (경축공연 국악한마당(KBS))
		07.11(1회).	도동서원	지혜로 여는 대동세계 (도동서원 과거제 재연)
		07.10. 07.17(2회).	남계서원	일두 정여창 선생을 그리며 (한시 백일장 대회)
		7.19(1회).	필암서원	서예로 품는 선비의 삶 (하서 유적탐방 및 서예체험)
		09.22.	옥산서원	동방의 지혜, 세상을 밝히다 (학문 교류를 통한 한·중 학술대회)

※ 본 행사와 프로그램은 코로나 등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계유산축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온 국민이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된 '세계유산축전' 사업이 올해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참 만남, 참 문화유산(Feel the REAL KOREAN HERITAGE)'이라는 구호 아래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특별 5대 사업 중 하나인 이번 2020 세계유산축전은 세계유산과 관련된 전통공연·재연행사는 물론 세미나와 체험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7월 한국의 서원을 시작으로 8월 경상북도, 9월 제주도까지 이어지는 축제의 향연을 즐기며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어가길 바란다.

한국의 서원
2020.7.3(금)~7.31(금)

경북(안동·경주·영주)
2020.7.31(금) ~ 8.30(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020.9.4.(금)~9.20(일)

※ 본 행사와 프로그램은 코로나 등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0 세계유산축전 경북 〈인류의 문화가치 경북에서 꽃피다〉

7월 31일(금) 하회마을 부용대에서 펼쳐질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한 달간 2020 세계유산축전 경북이 진행된다. '인류의 문화가치 경북에서 꽃피다'라는 주제로 도내(경주, 안동, 영주시 일원) 세계유산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전은 세계유산 가치와 더불어 지역적 특색을 선보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역사유적지구', '한국의 마을 - 하회와 양동' 등 단일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 경상북도에서 다가오는 8월 축제의 한마당을 즐겨보자.



2020 세계유산축전 경북 〈인류의 문화가치 경북에서 꽃피다〉

기간 7월 31일(금) ~ 8월 30일(일)

장소 경주시 : 대릉원, 첨성대
안동시 : 하회마을, 도산서원, 병산서원
영주시 : 부석사, 소수서원

주최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주관 한국문화재단, (재)세계유교문화재단

문의 (재)세계유교문화재단 054-851-7182

홈페이지 <http://www.worldcf.co.kr/>



2020 세계유산축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다가오는 9월, 국내 유일의 자연유산을 가진 제주에서 2020 세계유산축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진행된다. '자연의 숨결 따라'라는 주제로 자연유산 가치의 향유와 확산을 위한 복합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특별한 자연유산 공간들도 선보일 예정이라 기대가 크다. 특히 이번 축전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불의 숨결'은 헤리티지 루트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보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세계자연유산 가치를 확산해나가 제주의 핵심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제주의 웅장한 자연에 스며든 세계유산 가치를 마주할 가슴 벅찬 기회가 오는 9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020 세계유산축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기간 9월 4일(금) ~ 9월 20일(일) / 17일간 ※기념식 : 9월 5일(토) 18:30 ~ 9월 6일(일) 10:00 / 성산일출봉

장소 한라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만장굴 등), 성산일출봉, 세계유산마을(7곳),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등

주최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한국문화재단, 세계유산축전 사무국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축전 사무국 064-710-6873

홈페이지 <http://worldheritage.kr/>



문화유산 바람 캠페인

'Visit Korean Heritage' Campaign

Feel the REAL KOREAN HERITAGE

참 만남 참 문화유산